

서울에서 길고양이 되기

- 비인간의 시선으로 도시를 다시 읽다 -

조담빈*,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들어가며

21세기 들어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비인간과 물질이 가지는 힘에 주목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대적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로 대표되는 이 흐름은 인류세(Anthropocene)의 등장과 코로나 팬데믹,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변동적 사건들을 포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동시에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따라 동원한 과거를 반성하고 자연의 입체성과 행위성(agency)을 받아들여 이와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도시를 읽는 방식 또한 변화를 요한다. 기존 도시가 인간이 개발하여 만든 문화와 문명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그 내부에서 인간에 의해 생기고 발전한 경제, 정치, 문화 등에 의해 파악되었다면, 새로운 흐름과 함께 도시 내 다양한 비인간(nonhuman)들이 가시화되고 인간과 비인간 주체 모두의 교류와 결합으로 도시를 파악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그동안 잊힌 존재들과 그들의 강력한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도시 내 역동적인 현상과 역학을 포착하고 21세기의 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리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이처럼 도시 현상을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조경 또한 지속적으로 생태계와 동식물을 비롯한 비인간을 관심에 두고 다루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비인간을 경유한 학술 연구와 설계 프로젝트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의식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많은 경우 도시가 아닌 교외로 대상지를 한정하거나 비인간을 피상적인 대상이나 수단으로만 다루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은 자연과 도시, 인간과 비인간의 접점을 만들고 그려내는 전문 분야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간-자연 관계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조경이 가지는 잠재력이자 동시에 책무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비인간인 길고양이의 시선으로 서울을 다시 읽고자 시도한다.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조경 연구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길고양이가 되어 바라보는 서울은 어떤 다른 도시인지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 속 비인간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서울에 대한 기존 이해 방식의 인간중심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2. 탈인간중심주의와 조경

2.1 비인간 전회와 도시

근대 사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행위성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이며 인간 이외의 존재는 모두 ‘비’인간으로 인간 행위의 대상이나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이러한 근대주의적 사고는 다양한 사상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일관적으로 기본 전제로 자리하며 오랜 시간동안 당연한 세상보기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이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상들이 등장한다. 초점과 관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현대 사회의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환경적·문화적·과학기술적·사회적 측면이 모두 엮인(entangled) 변동적인 세계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세계에서는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이 없어지고 양쪽이 모두 행위성을 가진다. 환경, 문화, 과학기술, 관습, 인프라스트럭처, 대지, 동물, 곰팡이, 기계 등 모든 것 사이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결합을 통해 세계가 구성된다. 예컨대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ANT(Actor-Network Theory)에서는 다양한 인간, 비인간, 사물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Latour, 1991).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아야만 21세기의 역동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상적 흐름을 물질적 전회 또는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라 지칭한다.

이런 배경에서 도시 또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도시를 파악할 때 다양한 관점-주거, 교통, 인구, 상업, 정치, 경제 등-을 동원하며 도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구분은 모두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비인간 전회의 시선으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면, 도시의 행위만으로 계획되어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배치된 다양한 비인간의 행위성이 결합되어 지속적이고 혼종적으로 구성되어가는 공간이다(김준수, 2019: 94). 우리에게 익숙한 바둑기나 조경수 같은 비인간생물부터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깃줄 등의 비생물까지 모두 분명히 도시에 위치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조경에서의 비인간동물

경관을 다듬고 공원을 조성하던 초창기부터 보전과 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된 19세기를 거쳐 지금까지 조경은 계속해서 주요한 관심 대상인 식물과 함께 비인간동물(1)을 다루어왔다. Klosterwill(2019)은 조경에서 동물이 등장한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눠 정리했는데, 경관의 꾸밈 요소로 등장하는 동물, 생태와

기능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동물, 그리고 가장 최근 인간과 교류하고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동물이 그것이다. 경관이나 생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동물은 인간의 관리와 이용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 세계와는 분리된 자연 세계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근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교류와 설계의 주체로서 동물을 주목한 것은 비인간 전회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서 조경가 케이트 오르프(Kate Orff)의 오이스터-텍처(oyster-ecture)는 굴의 생태와 인간과의 교류가 만들어내는 순환을 통해 경관을 만들고 작동시키는 프로젝트라 평가받으며 동물의 행위성이 드러나는 설계의 대표작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다른 주요한 사례는 2020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경학자가 발간하는 잡지인 엘에이플러스(LA+)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LA+ Creature”이다. 해당 설계공모에서는 인류세라는 시대적 배경과 동물의 주체적 행위를 강조하며 동물과 공생하기 위한 설계를 요청했으며, 당선된 15작품과 함께 조경과 동물에 대한 글을 담은 잡지를 발간했다.

이렇듯 조경계에서 지속적으로 동물을 호출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고려나 인식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동물에 대한 주목이 적었으며 앞선 사례들이 일회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해외 사례들 또한 이론적 탐구나 토의가 부족하다는 점, 인간과 함께하는 도시적 대상지보다 교외나 ‘자연’으로 분류되는 대상지가 많다는 점, 사례에 따라 동물들의 주체성이 보이기보다는 인간에 의해 동원될 수단이나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대부분 설계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어 현재 도시의 모습을 포착하고 담아내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3. 길고양이의 시선으로 서울 다시 읽기

길고양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비인간 중 하나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호명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밥을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길고양이가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를 이해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길고양이는 흔히 없는 존재로 지워지곤 한다. 길고양이는 분명히 우리 눈에 존재하지만 도시 공간 설계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해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일반적인 서울 시민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도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며 개개인에게 일상 속에서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는 시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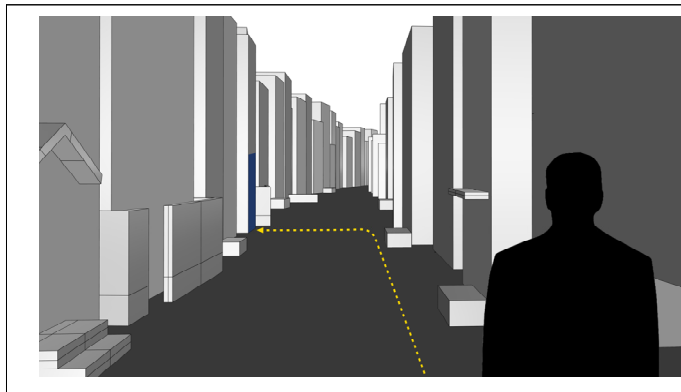


Figure 1. 인간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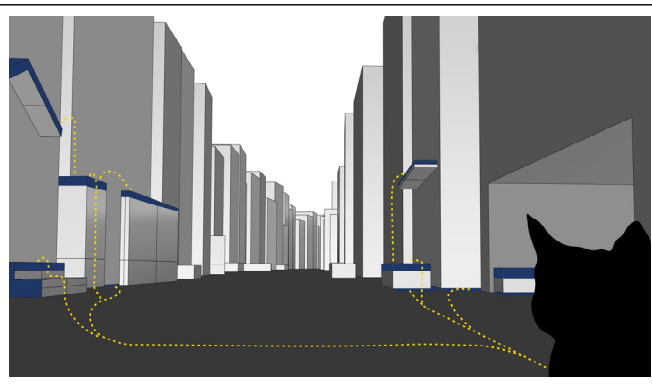


Figure 2. 길고양이의 시선

길고양이 개체 단위의 시선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인 시야 높이나 시각의 차이에 더해 이들의 공간 인식이 인간과는 사뭇 다르다. 인간은 주어진 길의 수평 방향성을 기준으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반면, 고양이는 적치물 상하부나 담장 위 등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해당 목적지로의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인간의 주요한 목적지인 실내 공간이 주로 길고양이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또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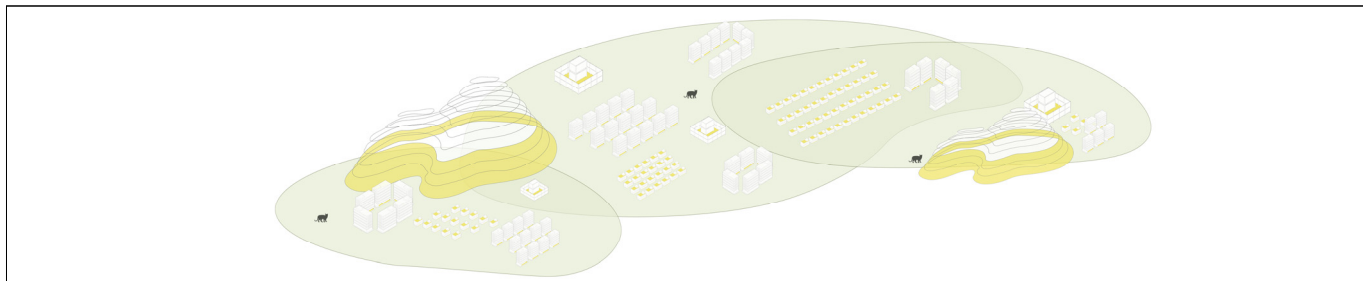


Figure 3. 길고양이의 패치-코리더-매트릭스 구조

1) ‘동물’은 원래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흔히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된다. 비인간 전회의 맥락에서 인간 또한 동물과 같은 일원론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비인간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단어 사용을 고려해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인간을 제외한 비인간동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렇기에 길고양이의 도시 이용에 있어서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불가능한 공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접근 가능한 공간 중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공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 단지, 공원, 공사장, 지하 주차장 등이 하나의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 고양이의 생활 환경인 영역 내부에서 이런 공간들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공간들을 잇는 동선이 구성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경관생태학의 생태 네트워크 개념을 차용하면, 고양이의 주 사용 공간들을 주요 번식과 서식지를 나타내는 개념인 패치(patch), 사이 동선을 패치를 잇는 개념인 코리더(corridor), 그리고 각 고양이의 반경을 이 모두의 배경이 되는 개념인 매트릭스(matrix)로 재해석할 수 있다. 각 고양이의 패치와 코리더를 담은 매트릭스가 겹치면서 고양이의 서울을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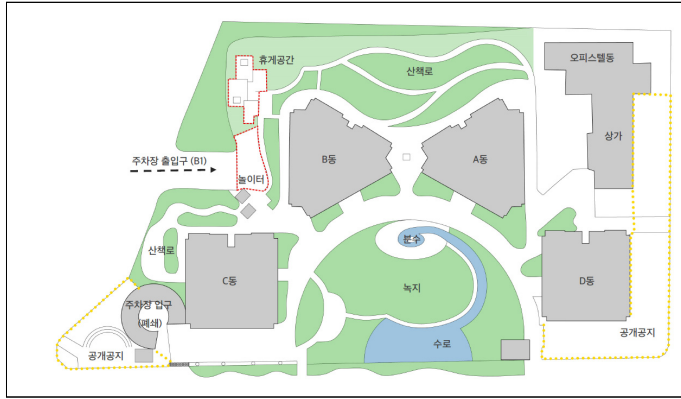


Figure 4. 인간의 아파트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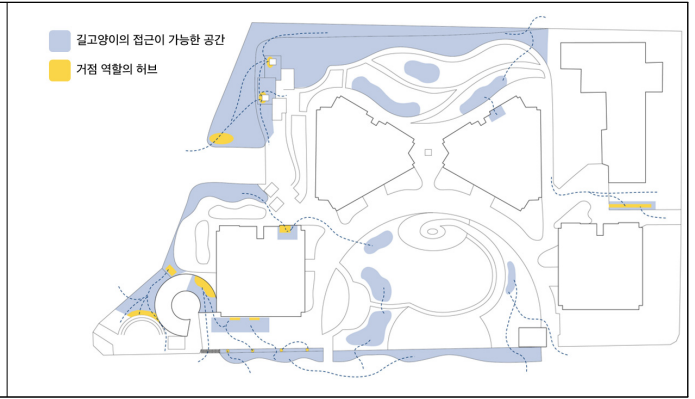


Figure 5. 길고양이가 인식하고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더 작은 단위로는 하나의 패치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고양이가 더욱 잘 머무르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패치 안에서도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며 패치 내부에서의 공간 사용과 이동 양상을 만들어내는 허브(hub)들이 있을 것이다. 상자나 건축 자재 등의 임시 거치물이나 실외기, 플랜터 등의 고정물이 만드는 공간부터 건물 구조상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공간들이 이러한 허브로 이용될 것이다. 일례로 인간의 주거와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는 길고양이에게 하나의 패치로 기능하며 이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식, 이해된다. 고양이가 접근 가능한 야외 공간을 기반으로 인적이 드문 시설물 뒷공간, 녹지 내 식재 공간이나 시설물이 만들어 내는 담장 위, 자전거 사이 공간, 인간이 사료를 배치하는 자리 등 이용의 중심이 되는 허브가 생겨난다. 이러한 허브와 더불어 단지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내부 동선, 즉 코리더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한 길고양이의 서울은 건축물과 도로 그리고 그 위에 적용된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담론으로 이해되는 인간의 서울과는 사뭇 다른, 머무를 수 있는 곳과 이를 잇는 동선, 자신의 영역,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존과 유희, 번식과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도 고양이라도 모두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서울시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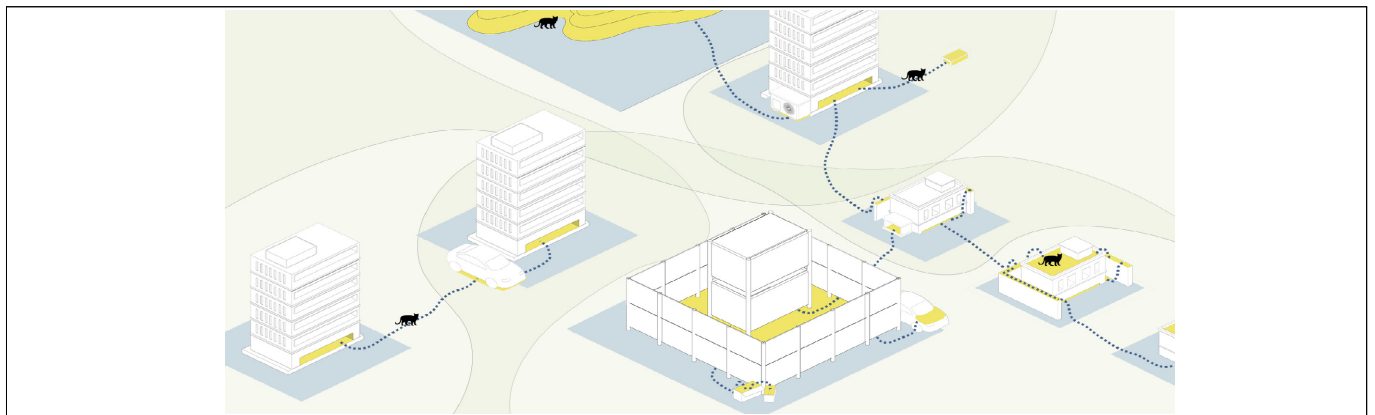


Figure 6. 길고양이의 도시

4. 나가며: 안 보이는 도시 행위자를 보기

본 연구는 길고양이의 시선에서 서울을 새롭게 읽으며 비인간전환이라는 사상적 전환을 기반으로 조경에서 비인간동물들을 조명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경이나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던 비인간을 도시 내 하나의 행위자로 다시 파악하는 시도는 인간의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비인간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이상적인 방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 이해 방식의 인간 중심성을 환기하고 도시 내 다양한 행위자를 포착함으로써 인류세 시대, 탈근대 시대의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은아(2020) 물질적 전회를 통해 본 나무와 인간의 얽힘, 그리고 상황적 지식. *교육인류학연구* 23(2): 1-37.
2. 김준수(2019) 한강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인간 너머의 물 경관. *공간과 사회* 29(1):93-155.
3. 김환석 외(2020)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서울: 이성과 감정.
4. 정재은(2020) 고양이들의 아파트. 다큐멘터리.
5. 최명애(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28(1): 16-54.
6. 황진태(2019) 한국 '인문'지리학의 한계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가능성. *문화역사지리* 31(3): 1-4.
7. Braun, B.(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635-650.
8. Klosterwill, K.(2019) The shifting position of animals in landscape theory. *Landscape Journal* 38(1-2): 129-146.
9. Latour, B.(1991) We have never been modern. 홍철기(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2009.
10.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14 (2021).